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성재



정부여당의 권력유지 육방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의 강행, 그리고 세종시 원안 백지화는 현 정권의 권력탈환에 공헌한 자들을 위한 큰 선물이다.

먼저 정권창출을 도왔던 소위 '조중동'이라는 언론권력에 지상파 방송을 선물하겠다는 보답행위는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설업자들과의 군건한 유대관계로 청계천 사업을 성공시켜 정권 탈환의 계기를 마련한 과시행정은 또다시 한국의 4대 하천을 수술하는 토목공사로 실현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여당은 수도권 부동산의 거품붕괴를 막아주겠다는 솔로건에 설득당해 권력을 선물한 이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들고 나왔다.

이제 문제는 정부여당이 보답의 차원을 떠나 권력유지, 곧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를 이들과 함께 다시 쓰겠다는 것이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강한 기득권 세력에 영합하는 길만이 다시 정권을

권력의지와 신뢰상실

치적 업적을 겉으로 보여주는 건설업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돈이 국민의 혈세이건 민간 자금이건 국민의 눈에 띄는 치적을 올리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제 유권자의 약 50%에 이르는 수도권 주민들의 입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만이 다음 선거에서 표심을 얻는 최고의 방책이다.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3대 집단으로서 언론·재벌·건설업자 그리고 수도권 유권자들은 정부여당이 특별히 대우해야 하는 기득권 집단

이다. 그렇다면 이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2등 국민이 되는 셈이다. 예컨대 현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충청과 호남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대해도 괜찮다. 그들이 권력에 저항하면 쟁탈시위 때처럼 소나기 피하듯 잠시 움츠리면 그만이다. 최악의 경우 그럴듯하게 화장한 얼굴마담 격 총리를 내세워 출신 지역민을 가식적으로 설득하기도 한다. 우리는 일국의 대통령, 총리 그리고 국회의원이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는 집단을 위해 정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은 절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한 정책공약이 이 빛어낼 수 있는 효율성과 비효율성은 그 다음 문제다. 한 정치인이 비효율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가 차후에 수정한다면 그는 정치무대를 떠나야 할 무능력한 사기꾼이다.

국민의 정치적 신뢰는 효과적인 미디어를 통한 선전·선동, 거대한 토목사업을 통한 치적 쌓기 그리고 특정 지역 유권자들의 욕망 체워주기로 얻어지는 재화와 용역이 아니다. 우리는 비록 천민자본주의의 동물적 욕망과 수많은 정치인들의 기만을 매일 체험하고 있지만, 누구나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항상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자유, 평등, 평화로운 공동체적 삶, 기쁨과 감동, 믿음 등일 것이다.

현 정부여당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본 가치를 무시하고 기만적인 솔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반복할 때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패배한다는 진리를 되새기기 바란다.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김상훈



2009년 7월 22일, 대한민국 하늘과 땅은 모두 범상치 않았다. 하늘에서는 달이 해를 삼켜 버린 일식(日蝕)이 있었고, 국회의사당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토론과 표결을 삼켜 버린 난장(亂場)이 있었다. 난장이 끝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었다. 예컨대 위 4대법은 난장 판의 생산물이다.

언론과 금융이 영리 추구의 영역인지 공적 제도의 영역인지,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객관성과 공정

이에 대한 학제판소의 결론은 한껏 논리적이다. 헌법기관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가결선포행위의 무효선언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법정의견이 들고 있는 논거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이고, 심의·표결권 침해로 인한 위원·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위원회·위법 상태는 맞지만, 그 결과물을 무효로 확인할 수 없다는 좌우적 구분, 국회 자율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순진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성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독자적인 양식에 따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질의, 토론, 심의, 표결해야 한다는 점만은 굳게 믿는다. 그리고 이 같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며, 사법적 판단으로 교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의심치 않는다. 그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내 생각의 당연한 공준이다.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이 날 사설관계를 보면, 2명의 의원이 의사당 밖에 있음을에도 재석하고 투표한 것으로 표시되고, 4명의 의원이 옆자리 또는 멀리 원정하여 단수 또는 복수로 무관투표를 하였으며, 17명의 의원이 제자리를 두고 태동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중 2명의 의원은 동료 의원에 의해 끌려나갔으며, 40명의 의원들이 대부분 10여 차례 찬성과 반대를 번갈아 기표한 것으로 표시되는데, 그 중 백미는 무려 24회에 걸쳐 찬성과 반대의 변덕을 부린 의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변호사〉

육아용품 부가세 영구 면제로 육아부담 덜어야

나, 젖병 하나를 사도 꼬박꼬박 붙는 부가세 10%는 모든 주부들에게 작지만 큰 부담이다.

현재는 육아용품 가운데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감면책도 2011년 말이면 끝이 난다고 들었다. 그래서 정부가 육아용품 부가세를 영구히 면제하자는 애기들이 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 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 정부는 4대강 사업 같은데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기 바란다.

▲유지영·목포시 수강동

기고

오경수



며칠 전 저녁 밤상 위에 꼬깃꼬깃한 천원짜리 한 장이 예쁘게 놓여 있었다. 이유인즉, 아침 출근 시에 갈아입은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것을 아래가 발견하여 돈 빨래를 한 후 다리미로 굽게 다려 놓고서 매사에 덤벙거리는 남편을 교육시킨답시고 눈에 띠게 식탁 위에 올려 놓은 것이다. 애써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으로 남자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위장술을 부리며 돌아서다 문득 요즘 매스컴을 통해 자주 회자되고 있는 돈 세탁에 대한 어원이 생각이 났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직 봉사자들의 수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이다. 끊임없는 반부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운동은 공조직 속의

을 거라는 최소한의 암시를 지키는 일종의 자기 위안적 풍습이었던 것이다.

허나 요즘 돈세탁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는 것 같다. 그저 재욕과 탐욕에 의한 위장과 사기 수단의 방법이 된지 오래 되고 결국은 돈이 되어 각종 언론을 도배질하는 경우가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직 봉사자들의 수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이다. 끊임없는 반부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운동은 공조직 속의

빨래 된 천원짜리 한 장

박지원의 양반전에 양반은 양(兩), 운(分) 하는 돈의 액수를 입에 올리지 않고 손에 대질 않는다 했다. 그만큼 마음을 흔드는 금전을 천시하고 멀리했었다.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텁이나 기방에서 기생에게 주는 환대를 것기락 돈이라 했는데 돈을 순대지 않고 놓고 것가락으로 집어 주었기 때문에 서기인하였음이다.

돈을 이렇게 천하게 여겼을 뿐더러 같은 값의 돈이라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벌었느냐로 그 가치가 크게 달라졌다. 이를테면 뜬돈(浮錢)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같은 값의 돈이라도 땀흘리지 않고 놓되 번 돈은 물에 담가도 가라앉지 않고 뜬다 하여 부실·부정한 돈을 뜬 돈이라 일컬었던 것이다.

퇴락하여 먹고살기 어려워진 양반들이 명분을 살리면서 먹고 사는 편법으로 이 뜬돈의 부정을 세탁하는 '돈씻이'라는 습속을 형성시켰다 한다. 회가루나 깃털을 탄 물에 염전을 담가 빨면 돈에 물은 부정이나 불의를 세탁할 수 있

화두가 된지 이미 오래며 이러한 노력들은 많은 곳에서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내고 사회로 과급되는 이중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광산구는 자치구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 컨설팅팀을 자정,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과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확산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조선 11대 중종 임금이 궁전 안뜰에 청(淸), 예(例), 탁(濁) 3개 문을 만들어 민족백관들을 향해 스스로가 청렴의지를 되새기게 했던 선현의 자혜를 본받도록 하고자 구청사 정문에 청, 예, 탁문을 설치함으로써 매일 출입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공직문화가 감지되고 있는 의미는 현상들이다. 빨래 된 천원짜리 한 장을 소중하게 다시 접어 지갑 속에 넣으며 나는 오늘 어떤 문을 통과하는 의식을 치러야 하는지 깊은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광주시 광산구 회계관리팀장·시인〉

세액공제 해주는 정치후원금에 관심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꼭 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공제대상 쟁기다. 나 또한 직장인으로서 한푼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꼼꼼히 자료를 챙기는 편인데 대부분의 공제가 과세대상만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이다.

이에 반해 내야 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세액공제 제도 사례는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으로 10만 원까지만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이런 제도가 있다면 한번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해 보는 것이 절대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지수·광주시 남구 월산5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시설

4대강 살리기 사업 '닻' 올렸지만...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을 이명박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영산강 6공구 승진보 사업 현장 등에서 가졌다. 본격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영산강과 한강, 금강, 낙동강 등 4개 강과 섬진강 등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22조 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지난 6월 8일 마스터플랜 공개 후 불과 5개월 만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2년 대단원의 공사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위원회수위의 본류 수질이 2급수 수준으로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흥수 조절 용량이 9억 2천만t 늘어나 200년 동안 한번 닉침민한 큰 홍수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34만 개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 등 부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선 보(渦) 설치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가 건설될 경우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물은 땅과 보에 갇혀 썩어갈 것이고, 강변은 콘크리트 제방에 애워싸여 질식해 갈 뻔하다는 것이다.

출수주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각종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착공 등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고 있다

는 지적들이다. 공사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와 부실공사 논란도 문제다.

어찌 됐든 4대강 살리기의〆이 올랐다. 우리는 수질오염 개선, 흥수예방, 생태복원 등 정부의 장밋빛 약속이 얼마나 험하고 무리하게 앞당기고 있다

는지 시각화하였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위원회수위의 본류 수질이 2급수 수준으로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흥수 조절 용량이 9억 2천만t 늘어나 200년 동안 한 번 닉침민한 큰 홍수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34만 개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 등 부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많아졌다.

관광 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외국 관광객 유치가 3배인 2천만 명으로 늘리는 등 의욕적인 비전이 제시됐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정부의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이다. 특히 30일간 무비자 입국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한중 양국 상호 무비자 입국도 이를 대체할 계획이어서 중국인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광 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오는 2015년 중국 해외여행객의 10%가 한국을 찾을 경우 1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나타 자동차 70만대 수출과 맞먹는 규모이다.

중국 관광객 유치는 개점휴업 상태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도 직결된다. 심각한 수준인 청년 실업률 해소에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리적 이점은 항공편이나 배편이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허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유가 있다. 무언다른 연료비 걱정 때문이다.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 속에 이미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은 지난해에 비해 상당폭 상승했다.

여기에는 지난 2년 동안 겨울철에 한 시즌으로 시행했던 난방유 감세 조치를 올해는 시행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연탄값마저 소비자 가격 기준 20% 이상 올라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예고되고 있다.

만만치 않은 에너지 비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겨우살이 방편이 내복 입기다. 환경운동가들에 따르면 내의를 입으면, 입지 않을 때보다 실내온도를 6~7도 낮추어도 같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체감온도 상승 효과 덕분이다. 온도를 1도 낮추면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절감액은 1천 500억원, 연간

無等鼓

에너지 수입비용은 2천 300만 달러나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복을 입는 것은 또한 감기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백화점업계의 내복 매출이 급증하면서 빨간색 내복이 잘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신종플루 확산 속에 시각적으로 따뜻한 효과를 주는 데다 예로부터 복을 불러오고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속설이 있어 인기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내복작용으로 연료 사용을 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가 내복이나 카디건을 입

내복입기</